



VACHERON CONSTANTIN
GENÈVE

PATRIMONY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

미니멀한 디자인과 워치메이킹의 우아한 품격이
어우러진 균형의 미학

2023년 3월 27일

PATRIMONY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

미니멀한 디자인과 워치메이킹의 우아한 품격이 어우러진 균형의 미학

소개

바쉐론 콘스탄틴의 순수함의 정신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살몬 컬러 다이얼

하이 워치메이킹의 정수로 손꼽히는 인하우스 칼리버 2460 R31R7/3

요약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 인터뷰

TECHNICAL DATA

-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특별한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에서 영감을 받은 미니멀한 디자인.
- 플래티넘 케이스와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로 손꼽히는 살몬 핑크 컬러 다이얼의 조합으로 구현해낸 절제된 디자인과 조화롭고 우아한 품격.
- 하이 워치메이킹의 순수한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2460 R31R7/3.

바쉐론 콘스탄틴은 우아한 품격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매뉴팩처는 1755년 설립 이래 바우하우스 원칙 중 하나인 “less is more”를 충실히 계승하며 하나의 예술 형태로서 세련된 시계 디자인을 추구해 왔으며, 이는 플래티넘 소재와 살몬 핑크 컬러 다이얼의 Patrimony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전형적인 디스플레이를 연상시키는 흔하지 않은 여러 레트로그레이드 컴플리케이션의 조합인 이 타임피스도 컬렉션 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EVE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MONDAY
TUESDAY
WEDNESDAY
THU
FRIDAY
SATURDAY
SUNDAY

SWISS
MADE

PATRIMONY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

미니멀한 디자인과 워치메이킹의 우아한 품격이 어우러진 균형의 미학

소개

바쉐론 콘스탄틴의 순수함의 정신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살몬 컬러 다이얼

하이 워치메이킹의 정수로 손꼽히는 인하우스 칼리버 2460 R31R/3

요약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 인터뷰

TECHNICAL DATA

바쉐론 콘스탄틴의 순수함의 정신

바쉐론 콘스탄틴은 설립 이후 줄곧 시대를 초월한 스타일을 추구해 왔으며, 950 플래티넘 소재에 살몬 컬러 다이얼을 탑재한 새로운 Patrimony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 워치 또한 이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연간 한정 수량으로만 생산되는 이 타임피스는 미니멀리즘과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심한 디테일을 연출하며 디자인 및 기술적 측면에서 메종의 위대한 전통을 충실히 계승합니다.

직경 42.5mm의 950 플래티넘 소재의 케이스 안에는 Patrimony 컬렉션의 코드를 반영한 선버스트 패턴 디테일의 살몬 컬러 다이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디자인의 요소에는 기계적이고 미학적인 정교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계의 모든 디테일에는 바쉐론 콘스탄틴 특유의 미학적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12시 방향의 아워 마커 아래에는 메종의 엠블럼인 말테 크로스 모티프가 양각 및 각면 처리되어 있습니다. 18K 5N 핑크 골드 소재에 한쪽 측면은 샌드블라스트 처리, 다른 한쪽은 폴리싱 처리로 완성된 바쉐론 콘스탄틴의 심볼의 새로운 디테일은 이 시그니처 플래티넘 케이스와 살몬 컬러 다이얼 조합으로 완성된 타임피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일과 날짜를 표시하는 두 개의 레트로그레이드 인디케이터는 전통을 고수하는 블루 스틸 핸드로 표시되며, 시간과 분은 18K 화이트 골드 핸드로 표시됩니다. 1950년대의 클래식한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아워 및 미닛 핸즈는 강렬한 빛 반사 효과를 더하는 돔형 다이얼의 모양에 맞춰 미세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에도 1950년대에서 영감을 받은 동일한 가장자리의 원형 펠 모양 미닛 트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는 타임피스에 시선이 닿는 바로 그 순간, 바쉐론 콘스탄틴이 추구해 온 세련된 스타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PATRIMONY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

미니멀한 디자인과 워치메이킹의 우아한 품격이 어우러진 균형의 미학

소개

바쉐론 콘스탄틴의 순수함의 정신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살몬 컬러 다이얼

하이 워치메이킹의 정수로 손꼽히는
인하우스 칼리버 2460 R31R/3

요약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
인터뷰

TECHNICAL DATA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살몬 컬러 다이얼

바쉐론 콘스탄틴은 1930년대부터 줄곧 컬러 다이얼을 개발하며 손목 위에 새로운 스타일의 우아함을 구현했습니다. 1940년대부터 메종의 워치에 등장하기 시작한 살몬 컬러의 다이얼은 화이트 메탈 소재의 케이스와 이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전설적인 크로노그래프로 손꼽히는 레퍼런스 4178과 같은 스틸 소재나 플래티넘 소재와 어우러진 살몬 컬러의 다이얼은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조합으로 시계 수집가나 진귀한 모델을 선호하는 이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에는 플래티넘 케이스와 살몬 컬러 다이얼에 컴플리케이션이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 등장하면서 클래식한 크로노그래프로 자리잡은 레퍼런스 47101과 1992년에 출시된 셀프 와인딩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인 레퍼런스 49005와 같은 다양한 제품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플래티넘 소재와 살몬 컬러의 조합은 메종의 유산으로 온전히 자리를 잡았고, 2022년부터는 다양한 컬렉션을 넘나들며 연간 한정 수량 생산하는 진귀한 타임피스로 새로운 미학적 요소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Patrimony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는 전통을 바탕으로 미학적이고 기술적인 영감을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바쉐론 콘스탄틴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 나갑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EVE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31

MONDAY
TUESDAY
WEDNESDAY
THU
FRIDAY
SATURDAY
SUNDAY

SWISS MADE



PATRIMONY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

미니멀한 디자인과 워치메이킹의 우아한 품격이 어우러진 균형의 미학

소개

바쉐론 콘스탄틴의 순수함의 정신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살몬 컬러 다이얼

하이 워치메이킹의 정수로 손꼽히는 인하우스 칼리버 2460 R31R7/3

요약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 인터뷰

TECHNICAL DATA

하이 워치메이킹의 정수로 손꼽히는 인하우스 칼리버 2460 R31R7/3

Patrimony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는 시간당 28,800회 진동하는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칼리버 2460 R31R7/3으로 구동됩니다. 무브먼트에는 말테 크로스 엠블럼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 오픈워크 22K 골드 로터가 탑재되어 있으며, 약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수공 폴리싱 앵글 마감 기법이 적용된 브릿지로 인하우스 칼리버에 위대한 전통을 반영했습니다. 부품 측면을 완벽히 매끈하게 완성하는 스트레이트 그레이닝 역시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스크류 또한 꼼꼼히 폴리싱 처리 되었습니다. 메인 플레이트의 양면에 원형 그레인 처리 및, 브릿지 뒷면에는 꼬뜨 드 제네브 모티프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PATRIMONY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

미니멀한 디자인과 워치메이킹의 우아한 품격이 어우러진 균형의 미학

소개

바쉐론 콘스탄틴의 순수함의 정신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살몬 컬러 다이얼

하이 워치메이킹의 정수로 손꼽히는 인하우스 칼리버 2460 R31R7/3

요약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 인터뷰

TECHNICAL DATA

요약

여러 레트로그레이드 컴플리케이션을 독창적으로 조합하여 1920년대 및 1930년대 특유의 디스플레이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Patrimony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는 950 플래티넘 소재에 살몬 컬러 다이얼을 매치한 디자인으로 세련된 스타일을 추구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전통을 계승합니다. 950 플래티넘 소재의 케이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다이얼 컬러의

조합으로 우아한 품격과 탁월한 기술력을 구현해낸 이 타임피스에는 연간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며, 바쉐론 콘스탄틴 공식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More info: https://youtu.be/o3plZx_zUfE





VACHERON CONSTANTIN
GENÈVE

PATRIMONY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

미니멀한 디자인과 워치메이킹의 우아한 품격이 어우러진 균형의 미학

소개

바쉐론 콘스탄틴의 순수함의 정신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살몬 컬러 다이얼

하이 워치메이킹의 정수로 손꼽히는 인하우스 칼리버 2460 R31R/3

요약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 인터뷰

TECHNICAL DATA

크리스티앙 셀모니와의 인터뷰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의 레트로그레이드 인디케이터가 등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바쉐론 콘스탄틴 매뉴팩처가 아카이브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타임피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기능을 장착한 최초의 손목시계는 돈 판초Don Pancho입니다. 시계를 의뢰한 인물의 이름을 따서 수집가들이 별칭을 붙여 준 타임피스죠. 1935년, 메종은 마드리드의 공식 리테일러인 브루킹Brooking으로부터 주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포켓 워치에 탑재되던 컴플리케이션인 미닛 리피터와 캘린더 인디케이터에 레트로그레이드 핸즈를 장착한 손목시계 제작 의뢰였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마침내 1940년, 지금은 돈 판초Don Pancho로 알려진 레퍼런스 3620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옐로 골드 소재의 토노형 손목시계는 12시 방향에 위치한 크라운과 오른쪽 슬라이드 레버로 작동하며 의도적으로 낮은 톤의 소리가 울리게끔 설계된 미닛 리피터가 돋보였죠. 돈 판초Don Pancho는 이 제품을 7년간 착용했고, 그 후 이 제품은 60여 년간 자취를 감추었다가 2019년 필립스, 백스 & 루소Phillips, Bacs & Russo 경매에 등장하여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모델은 1994년, 독특한 다이얼을 향한 메종의 열망을 엿볼 수 있는 메르카토르Mercator 시계입니다. 16세기 지리학자 헤라르뒤스 메르카토르Gerard Mercator에 경의를 표하는 이 타임피스는 에나멜 또는 인그레이빙 다이얼 위에 시간과 분을 표시하는 더블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었고, Metiers d'Art 컬렉션에 속하는 모델의 다이얼 디자인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핸즈의 축은 12시 방향에 배치되었습니다.



PATRIMONY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

미니멀한 디자인과 워치메이킹의 우아한 품격이 어우러진 균형의 미학

소개

바쉐론 콘스탄틴의 순수함의 정신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살몬 컬러 다이얼

하이 워치메이킹의 정수로 손꼽히는 인하우스 칼리버 2460 R31R/3

요약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 인터뷰

TECHNICAL DATA

바쉐론 콘스탄틴의 역사에서 Don Pancho가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9년 해당 제품의 경매를 진행했던 오렐 백스Aurel Bacs가 이를 명확하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타임피스에는 역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손목시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기술적 위업이자 인간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닛 리피터와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의 캘린더 기능을 결합한 디자인은 당시에 손목시계 디자인에서는 한 번도 선보인 적이 없었으며,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유사한 디자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2000년대 초, 레퍼런스 47245를 통해서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를 탑재한 손목시계를 다시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립 245주년을 기념하는 이 타임피스는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와 6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에서 핸드로 요일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 핸드로 날짜를 표시하는 방식은 가독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구현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마침내 2006년에 이르러서야 최초의 더블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 손목시계인 레퍼런스 86020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타일 앤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 Christian Selmoni



PATRIMONY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

미니멀한 디자인과 워치메이킹의 우아한 품격이 어우러진 균형의 미학

소개

바쉐론 콘스탄틴의 순수함의 정신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살몬 컬러 다이얼

하이 워치메이킹의 정수로 손꼽히는 인하우스 칼리버 2460 R31R7/3

요약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 인터뷰

TECHNICAL DATA

TECHNICAL DATA

Patrimony retrograde day-date

Reference	4000U/000P-H003
Calibre	2460 R31R7/3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25.6 mm (1 $\frac{1}{4}$ "") diameter, 5.4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276 components 27 jewels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Indications	Hours, minutes, retrograde day of the week and date
Case	950 platinum 42.5 mm diameter, 9.7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ers)
Dial	Salmon-coloured with sunburst finishing Convex external zone with external minute-circle composed of fine diamond-polished 18K white gold pearls 18K white gold applied hour-markers and hour & minutes hands Blued steel date and day hands
Strap	Dark blue <i>Mississippiensis</i> alligator leather with calf inner shell, tone-to-tone stitching, square scales
Clasp	950 platinum pin buckle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Available exclusively from Vacheron Constantin boutiques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레이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리크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